

독일에서 만난 별난 아티스트 '버드맨 Birdman'

한스 랑그너 Hans Langner

“독일 남동부의 한적한 시골 마을 오버바이에른에서의 일이다. 새 박물관에 간다가에 ‘하늘을 나는 그저 그런 새졌거너’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알프스의 높은 산 아래에 허름한 2층 목조 건물은 온갖 새 그림으로 뒤덮여 완전히 포위당한 모습이었다. 새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영원히 이들의 아빠이기를 자칭하는 ‘버드맨’ 한스 랑그너 씨는 그곳에서 오늘도 새 한마리를 태어나게 하는 송고한 작업에 빠져 있다. 글 서현 심민아 기자

흰 셔츠 위에 카디건과 해링본 수트까지 말끔하게 차려 입은 한 중년 남자가 수 천 마리의 새들이 모여 사는 아틀리에로 초대됐다. “한국에서 왔다고요? 한국에서 발간된 멜라니 클리어의 ‘예술가의 집’이란 책에 한번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 하며 수줍은 미소로 책을 꺼내미는 이 남자는 새만 그리는 아티스트, 한스 랑그너 Hans Langner 씨이다.

“처음부터 새를 그렸던 건 아니에요. 홍콩에서 봄에 풀을 밟아 배갯속 오리털을 디닥디닥 붙이고 새가 되어 퍼포먼스를 벌였어요. 정말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 4년 쯤 지나자 누군가 제게 ‘왜 새는 그리지 않느냐’고 반문했어요. 그 뒤로 독일로 와서 줄곧 새만 그려왔으니 벌써 8년도 더 되었네요.” 이때부터 매스컴을 통해 그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한스 랑그너라는 이름 앞에는 ‘버드맨’이라는 애칭이 늘 따라 다녔다. 새 하나를 그리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는다. 사랑을 속삭이는 다정한 커플부터 무릎을 꿇고 구애하는 수컷에게 무심한 암컷, 화려한 깃털을 뽐내는 새까지 그의 손길은 거친 새들은 표정 하나까지도 사랑스럽다. 새의 특징만 잡아서 단순하게 표현하는데, 점 하나를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 표정이 다양하게 변한다.

그는 “땀권 같이 생긴 이 수니 조형물 보이시죠?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감이 오나요? 바로 나선형의 철제 계단입니다.” 라고 말한다.

화물차 덮개며 사료 포대, 찌그러진 냄비 뚜껑, 낡은 구두 솔 등 쓸모없이 버려진 폐품에도 다치는 대로 새를 그려 넣는다. 이 아틀리에도 193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농가라고, 아틀리에 어느 곳이든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얼마 전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들을 위해 마당에서 위령제까지 올리고, 몇 해 전 죽은 남동생을 늘 가슴에 품고 사는 한스 랑그너 씨. 그와 몇 마디 나눴을 뿐인데,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온다.

이곳저곳을 돌아보며 초기부터 최근의 작품까지 일일이 설명해 주는 한스 랑그너 씨는 기분이 좋아졌는지 마지막에는 근사한 노래까지 불러준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퍼포먼스뿐 아니라 시와 작곡, 그리고 노래까지 겸하고 있는 멀티아티스트였다. 평소에는 조용하게 새와 지내는 시간을 즐긴다는 그의 아틀리에를 방문하려면, 미리 예약을 하고 와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틀리에에서는 한 생명이 부화하고 있을 테니까. 🐣

